

수사 중 인권 보호 강화... '이선균법' 등 잇단 발의

주철현, 수사 단계에서의 수사권 남용 금지 '망신주기'·'아니면 말고'식 공보 관행 근절 박균택, 검찰 무분별한 통신정보 조회 막아



주철현 박균택

검사장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박균택 국회의원이 정치인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갑)은 4일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일명 이선균법)을 대표발의했다.

형사 사건의 수사·공보는 그 과정에서 피의자·피해자 등의 사생활이나 인권 침해할 수반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현행 형사법제가 관련 규정들을 대통령령이나 부령과 같은 하위법령에 둔 탓

에 사건 관계인의 권리 보장에 한계가 존재하고 형사사건 수사의 정당성과 실제적 진실 확보에도 악영향을 끼쳐 왔다.

개정안에는 우선 수사 단계에서의 수사권 남용 금지를 천명했다.

구체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는 별건 수사 ▲수사 기간의 부당한 지연 ▲정당한 이유 없는 사건 관계인의 반복 소환 ▲사건 관계인의 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확대 수사 등 인권 침해를 야기하는 부당한 관행들의 금지를 명문화했다.

또한 진술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

·편의를 제공하는 등 수사라는 미명 하에 자행되던 수사 담당자의 강압·거래를 차단했다. 동시에 개인정보 수집 범위를 '수사상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의 부당 이용과 유출도 엄금했다.

공보 단계에서는 형사 사건의 공보는 반드시 법률에 의한 것을 명시하고 수사 관장장이 지정한 단일 통로의 담당자가 공보를 전달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공보 담당자가 공보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부당 이용하거나 유출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과 개인 정보가 공보 단계에서 새어 나가는 고질적인 병폐를 차단토록 했다.

무엇보다도 소위 '망신주기',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수사 관련 공보를 근절하기 위해 ▲사건 관계인의 출석 정보 비공개 원칙 ▲촬영 제한 등 초상권 보호 조치 ▲공보 담당자 외 수사 담당자의 개별적 언론 접촉 금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국가 배상 책임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국가가 사생활이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건 관계인에게 배상할 책임을 지게 했다.

아울러 수사·공보담당자 등이 '이선

균법'에 따른 주요 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뒤 실질적인 강제력을 확보했다.

주철현 의원은 "수사권은 엄연한 공권력으로 피의자·피해자의 기본권 침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사기관이 인권 침해 소지를 경계하지 못할 망정, 공권력에 기대고 또 공권력에 취해 적극적으로 악용해 오진 않았는지 수사기관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갑)도 검찰의 무분별한 통신이용자 정보 조회를 금지하는 '통신비밀 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 정보를 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하려던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규정된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 즉시 폐기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박 의원은 "검찰이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3천여명을 넘어 올해 상반기에만 약 2만7천여명에 달하는 국민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했다"며 "통신 조회 요건을 강화하고 수사·재판이 종료된 이후 해당 자료를 폐기하도록 해 수사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통신비밀을 제공하거나 보호하는 것을 규정된 내용이 전기통신사업법과 통신비밀보호법에 산재해 있다"며 "통신비밀 보호에 관한 규정을 법 체계 상 정합성에 맞도록 정비해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정준호 "광주지하철 2호선 정부가 총사업비 증액해야"

광주시 요구안 보다 대폭 감액 탓...사업타당성 부족 5회 유찰



공사비 문제로 입찰이 5차례 무산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는 광주 지하철 2호선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사진)은 지난 3일 열린 국회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구간 유찰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총사업비 증액을 적극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당초 광주시 요구안보다 총사업비를 대폭 감액시킨 결과, 사업 타당성이 부족해 5회나 유찰됐다"며 "지난해 예산 1천87억원을 한 푼도 못 쓴 책임은 결국 총사업비 책정을 잘못한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기재부 협의 사항인 총사업비 증액 등 현안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이날 현재 추진 중인 광주 복합소빙물체에 대해서도 교통대안이 우려된다며 2호선 지선과 BRT 등 교통

대안을 마련할 것도 강력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정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며 "현황을 파악한 후 별도 보고하겠다"고 답변해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김진수기자

신정훈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선임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사진)이 4일 민주당 내 상설기구인 '참좋은지방정부 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됐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지방분권형 개헌과 국가균형발전 의제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정부, 지방의회와 협력 강화 및 지원 확대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지방정부가 처한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며 지방정부의 혁신과 자율성을 강조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발언하는 조국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탄핵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조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대희 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추석 명절 밤상에 윤석열, 김건희 씨 대신 다른 이름을 올리기를 위한 국민 전환용 기획 수사'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국가발전 주도" 국부포럼 첫 간담회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여야 국회의원 21명이 결성한 '국회 국부포럼'(공동대표 서삼석·염태영)이 지난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제22대 국회 발대식 및 제1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발대식·간담회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서삼석·김성환·신정훈·김영배·주철현·박용갑·염태영·장종태·허성무 의원, 국민의힘 이종배·조은희·김선교·이인선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참석했다.

국부포럼은 이날 간담회 주제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어떻게 할 것인가'로 선정,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2차 이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서삼석(사진) 공동대표는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으로서 지방자치 행정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2대에 이어 22대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부강하게 만들고자 포럼을 결성했다"며 "민생 안정과 국가 발전을 위해 국부포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병원 찾아달라" 요청 2배 이상 증가

양부남 "구급대원·소방당국 업무 부담 가중"

올해 2월부터 8월25일까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병원을 찾아달라"는 구급대원의 요청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병원이 늘어나는 가

운데 응급환자를 위해 병원을 선정하는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역할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사진)이 4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2월부터 지난달 25



일까지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이송병원 선정 건수는 총 1천1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19건 대비 131% 증가했다.

양부남 의원은 "구급대원들과 소방당국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통계를 드러냈다"며 "구급대원들과 소방당국의 업무 부담을 줄일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진수기자

그린알로에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